

# 근대5종 서창완 월드컵 개인전 금메달 '쾌거'

### 양카라 2차 대회서 우승 여자부 성승민은 은메달

서창완과 성승민이 근대5종 월드컵 남녀 개인전에서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국군체육부대 서창완은 21일 튀르키예 양카라에서 열린 국제근대5종연맹 월드컵 2차 대회 남자 개인전에서 이집트 무타즈 모하메드와 아메드 엘젠디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한국체육대 성승민은 여자 개인전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끝에 영국 케렌자 브라이슨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서창완은 "양카라에서 항상 성적이 좋았는데 이번 대회에서도 그렇게 됐다. 펜싱에서 늘 부족하다 느껴왔지만 이번 대회에서 펜싱 성적이 좋아 우승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창완은 펜싱 마지막 2경기에서 승



21일 튀르키예 양카라에서 열린 국제근대5종연맹 월드컵 2차 대회 남자 개인전에서 서창완(국군체육부대)이 레이저 런 부문에서 뛰고 있다(왼쪽). 시상대 가운데 선 서창완.



연합뉴스

리함으로써 금메달을 차지할 수 있었다. 펜싱에서 2위를 차지한 서창완은 수영(6위)과 승마(8위)에서도 고른 기량을 펼쳤다. 서창완은 펜싱과 수영, 승마 종합 성적

1위를 차지한 덕분에 레이저 런에서 가장 먼저 출발했다. 서창완은 사격과 육상(레이저 런)에서 모하메드의 추격을 따돌린 끝에 1위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서창완은 총 1497점을 얻어서 모하메드(1490점)와 엘젠디(1483점)를 물리쳤다. 서창완은 2022년 6월 양카라에서 열린 월드컵 최종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은

데 이어 1년 10개월 만에 양카라에서 월드컵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다. 성승민은 펜싱과 수영, 승마에서 종합 7위에 그쳤다. 그러나 성승민은 7번째로 출

발한 레이저 런에서 말락 이스마일(이집트)과 루시 흘라박코바(체코) 등을 제친 끝에 순위를 2위까지 끌어올렸다.

은메달을 목에 건 성승민은 총 1401점을 얻어서 금메달의 주인공 영국 케렌자 브라이슨(1427점)을 26점차까지 추격했다.

성승민은 "레이저 런 경기가 메달 획득에 도움이 됐다. 이번 시즌 경기력이 무척 좋은 것 같다. 계속 열심히 해서 올림픽에 출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올림픽 근대5종은 개인전만 열리고 나라도 남녀 2명까지만 출전할 수 있다.

한국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금메달리스트 전용태(광주광역시청)와 여자 은메달리스트 김선우(경기도청)가 출전권을 확보했다. 서창완과 성승민은 파리 올림픽 출전권을 얻기 위해 6월에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할 계획이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 나란히 선발 복귀... 김민재는 팀 승리·황희찬은 패배

### 뮌헨 베를린 상대로 5-1 완파 올버햄프턴은 아스널에 0-2 패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가 선발 복귀해 뮌헨(독일)의 승리를 이끌었다. 국가대표 공격수 황희찬은 부상을 입고 선발 복귀했으나 올버햄프턴(잉글랜드) 패배를 막지 못했다.

독일 프로축구 뮌헨은 21일(한국시간) 베를린 슈타디온 안 데어 알텐 퍼르스터라이에서 열린 유니온 베를린과 2023-2024 분데스리가 30라운드 원정경기에서 5-1로 이겼다. 선발 출전한 김민재는 후반 14분 다요 우파메카노와 교체될 때까지 뛰었다.

황희찬이 공격수로 나선 올버햄프턴은 영국 올버햄프턴의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34라운드 홈경기에서 아스널에 0-2로 졌다.

뮌헨으로 이적해서 주전으로 뛰었던 김민재는 토트넘(잉글랜드) 출신 에릭 다이아에게 밀려 최근 후보로 밀렸다.

이달 초 하이텐하임과의 리그 28라운드에 모처럼 선발로 출전했으나 실점 발미를 제공하고 팀이 2-3으로 역전패하며 아



21일 독일 베를린의 슈타디온 안 데어 알텐 퍼르스터라이에서 열린 유니온 베를린과의 2023-2024 분데스리가 30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김민재(뮌헨)가 공을 다루고 있다(왼쪽). 올버햄프턴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올버햄프턴의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34라운드 홈 경기에서 아스널에 0-2로 졌다. 황희찬이 공을 다루고 있다.

연합뉴스



쉬움을 낚았던 김민재는 이후 공식전 2경기에서 벤치를 지켰다. 김민재는 4경기 만에 선발로 돌아왔다.

뮌헨은 유니온 베를린을 5-1로 완파, FC 쾰른과의 29라운드(2-0 승)에 이어 리그 2연승을 수확했다. 이번 시즌 레버쿠젠(승

점 79)에 트로피를 내줘 분데스리가 12연패를 이루지 못한 뮌헨(승점 66)은 2위에 자리했다.

김민재와 다이어의 중앙 수비 조합을 깨내든 뮌헨은 전반 29분 레온 고레츠카, 전반 추가 시간엔 최전방 공격수 헤리 케인의 연속 골이 터지며 전반 두 골 차 리드를 잡았다. 페널티 아크 뒤편 오른쪽에서 강하게 찬 오른발 프리킥이 꽂으며 득점포를 가동한 케인은 이번 시즌 리그 33호 골로 득점 선두 질주를 이어갔다.

후반 8분 토마스 뮐러의 추가 골로 일찌감치 승리를 예감한 뮌헨은 후반 14분 첫 교체 카드를 김민재를 우파메카노로 바꾸는데 썼다. 이후 후반 17분 마티스 텔, 21분엔 다시 뮐러의 연속 골이 폭발하며 시원한 승리를 거뒀다.

축구 통계업체 후스코어드닷컴은 김민재에게 팀 내 중간 정도이자 수비진에선 가장 높은 평점 7.6을 줬다. 고레츠카가 9.6점, 케인이 9.3점을 기록했다. 뜻밖은 김민재에게 7.5점을 부여했다. 여기서도 고레츠카가 9.0점으로 최고 평점을 받았고 뮌헨 선발 수비진 중엔 알폰소 데이비스가 8.2점으로 가장 높았다.

한편 황희찬은 부상을 털고 약 두 달 만에 왼쪽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서 후반 6분 마리오 레미나와 교체될 때까지 5분간 그라운드를 누볐다. 황희찬은 2월 말 브라이언 엔드 오브 앨비언과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1라운드 홈 경기(1-0 승)에서 허벅지 뒤 근육(햄스트링)을 다쳤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 선두타자 홈런 썰기 2루타... 이정후 종합무진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사진)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통산 2호이자 안방인 오라클 파크에서 1호 홈런을 쏘아 올리고 썰기 타점을 수확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이정후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 파크에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치른 홈경기에서 1번 타자 중견수로 출전해 먼저 1점을 주고 맞이한 1회 말 첫 타석에서 선두 타자로 동점 홈런을 터뜨렸다. 애리조나 에이스인 우완 선발 투수 잭 갤런의 2구째 높은 속구(시속 149km)를 잡아당겨 시속 158km의 속도로 약 111m를 날아가는 1점짜리 포물선을 그렸다. 지난달 31일 샌디에이고 팻 코파크에서 MLB 데뷔 홈런을 친 이래 21일 만에 터진 이정후의 두 번째 홈런이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BEYOND GOLF**

세계 최대 드라이버 스위트스팟 영역 75mm  
세계 최대 드라이버 페이스 면적 5040mm²

## 550cc의 헤드로 '똑바로' 더 멀리 날린다.

골프클럽 역사상 최대의 스위트스팟으로 타사의 고반발을 초월하는 성능

**한계를 넘어선 \*세계 최대 체적의 550cc 드라이버**

- 반발계수 C.O.R 0.92의 극초고반발 / 동일 반발계수 기준 세계에서 가장 안정성 높은 견고한 헤드(35m/s의 타구 2,000번 이상 견딜)
- 현존하는 모든 고반발 드라이버 중 최대의 헤드체적인 550cc를 실현하여 타사 드라이버 대비 훨씬 더 큰 관용성과 긴 비거리를 실현
- 골프클럽 사상 가장 넓은 페이스/스위트스팟 넓이를 통해 타사의 고반발 클럽 대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똑바로 쏘는 직선상의 타구를 구현

**New**

**신제품**

비욘드 V550 드라이버

시타 | 상담문의 **1800-6007**